

「인사말」

사랑하는 전남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전야에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전남대학교 평의회(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회)와 교수회를 이끌어 갈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재관 교수입니다.

지난 8월 말, 전남대학교 제42대 교수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20대 교수평의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출범한 제4대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으로도 호선되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회와 평의회를 대표하여 심의기관과 대의기관으로서의 학칙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의 약속을 대학구성원께 드리고자 합니다.

1. 교원, 강사, 직원, 조교, 학생 그리고 총동문회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소통하는 자세로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수평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인 ‘교무 및 학생위원회’, ‘재정 및 복지위원회’, ‘기획 및 시설환경위원회’, 그리고 ‘산학연구 및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 활동을 펼침으로써 대학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제도의 혁신을 이루도록 평의회 위원들은 온갖 지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0여년 전 영국의 대학평가기관(QS) 글로벌 순위에서 전남대는 600위권(아시아 대학평가 108위)이었다가 2023년에는 800위로 추락하여 심각한 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QS와 조선일보가 공동 실시한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지방국립대 세 곳이 이변을 일으켰지요. 전북대(103위->97위), 전남대(119위->108위), 충남대(126위->121위)로 지방국립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늘리고 교수승진 조건을 강화하고

도와 학생비율도 40%대로 높임으로써 “지방대는 뭘 해도 안된다” 통념을 깨트리기도 했다.

이제 다시 전남대가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기 위해 본부는 물론이고 교수 학생들이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글로벌 대학으로의 발전은 연구와 교육이 중심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연구와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을 이뤄나가면 학생 모집 문제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전남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남대 가족 여러분! 현 정부가 전격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GLOCAL) 30 사업,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에 대해 아시나요?

이제까지 역대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서열화된 대학 위계 체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화함으로써 지방 국립대의 위기는 날로 더 심화되어 왔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핑계로 삼아 대학서열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하기 보다 오히려 지방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지방국립대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친시장화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정책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RISE, GLOCAL 30 사업, 지방대학육성법 개정입니다.

이 세 가지 정책들의 핵심은 지방국립대학을 지자체에 재정 관리 감독권을 이양하려는 일련의 시도들로서 헌법에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천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해 초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모두 이 사업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가 몇 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 재정지원(1년 200억씩 5년간 지원한다는 구상)에 현혹되어 각자도생으로 돌아서자 결국 모든 대학이 잘못된 방향임을 알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RISE, GLOCAL 정책 추진은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되는 지방국립대학 구조조정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지원과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시도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뒤흔들어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를 후퇴시킬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전남대가 지역과 상생하고

공동발전을 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당연히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자체가 지자체, 산업체, 대학(지산학 협력)이 공생하며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대학의 재정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고등교육기관을 관리해 본 경험이 없는 지자체에게 대학을 맡기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해치고 대학을 발전을 가로 막을 수 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대가 글로컬 대학이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로컬 대학으로 잔류 하향 평준화하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전남대는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면서 지역 인재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남대의 명운을 가를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대학 전체 구성원들(교수, 직원, 학생)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올 해 초부터 일방적으로 추진(전남대 글로컬 대학 선포, 광주시와 전남대 글로컬 대학 협력 MOU 체결 등)한 다음 사후에 구색 맞추기식 공청회 개최는 절차적 부당성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교수회는 향후 전체 구성원들에게 RISE, GLOCAL 사업이 무엇인지, 전남대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여론 수렴 절차를 가지고자 합니다.

4. 제 임기 중에 진행 될 ‘2024년 제22대 총장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훌륭한 새 총장님을 모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전남대가 로컬 대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역량과 자질을 갖춘 총장님을 모시는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교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연구 및 승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교수회장으로서의 역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어느새 지나 벌써 추석이 다가왔네요. 전남대 구성원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평의회와 교수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고 달리며, 의견을 경청하며 공통의 목표인 전남대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

감사합니다.

제4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 제20대 교수평의회 의장 · 제42대 교수회 회장

김 재 관 드림